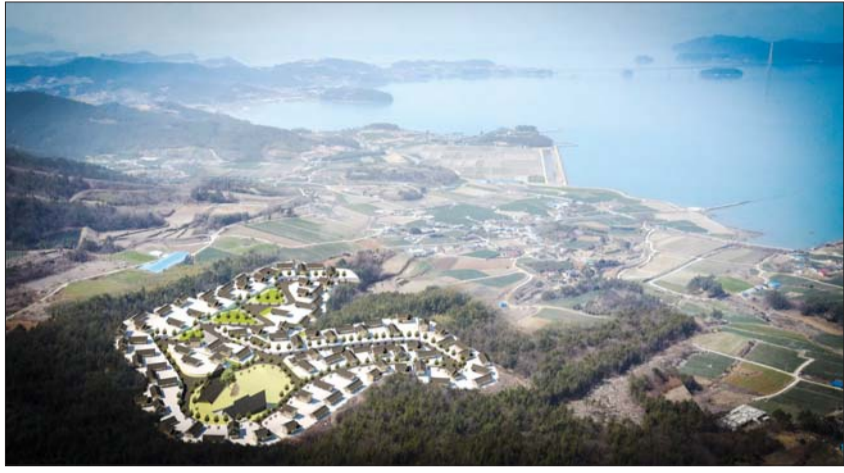


고흥군, '새꿈도시 조성' 가속화... 인허가 행정절차 선추진

현지설명회서 26명 가계약 성과
뿔 요양원 방문해 복지사업 접목
착공시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



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(독일마을) 조성사업 조감도

/고흥군

고흥군(군수 공영민)이 전남도로부
터 지정받은 '금산 석정지구 새꿈도
시 조성사업' 추진 속도에 탄력을 받
을 전망이다.

'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
업'(이하 '새꿈도시(독일마을))은 고
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 124번지 등 6
필지 63,318㎡(2만 평) 부지에 100세
대 규모의 전원주택과 커뮤니티시설,
파독 근로자 전시관, 노인복지시설
등 복합주거단지를 갖춘 마을 조성사
업이다.

이번 쿨링, 프랑크푸르트 등 4개 도
시 설명회에 공영민 군수, 이재학군의
회 의장, 김광남 추진위원회장 등 민·
관 합동(10여 명) 현지 방문 파독 근로
자, 간호사 등 대상 당초 200명의 계획
보다 50%가 늘어난 300명이 넘는 참
여와 관심 속에 사업내용, 입주 상담
등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.

새꿈도시(독일마을) 조성사업추진

에 민·관 합동 현지 설명으로 그동안
타 지역 독일마을 조성사업의 아쉬움
과 달리 고흥군의 독일마을 조성 의지
와 부지 先 확보, 토지이용 주택 개발
행위 즉시 가능, 공공시설(도로, 상수
도 등) 지원 등 차별화된 믿음으로 현
지 설명회에서 70여 명의 상담을 통해
26명(1차)의 가계약 성과를 거뒀다.

더불어, 올해 10월경 재독 교포의
고국 방문 시 새꿈도시(독일마을) 조
성 현장 방문과 설명으로 입주자가 더
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아울러, 독일 프랑크푸르트 게리아

트룸 요양원을 방문해 시설구조, 요
양원 입소자 관리, 시설 운영 및 관리
등에 대한 안내 견학과 설명을 듣고
이곳 복지시설 장점을 새꿈도시(독일
마을)에 구상하고 있는 복지사업에
접목할 계획이다.

앞으로, 새꿈도시(독일마을) 100세
대 조성 계획을 1단계(50세대)와 2단
계(50세대)로 나누어 추진하고, 토지
는 100평~200평 규모로 분양하며, 주
택은 15평~30평 등으로 입주자가 선
택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.

특히, 1단계 추진 50세대는 독일식

과 한옥 주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, 2
단계 추진 50세대 주택 구조는 현대식,
한옥, 독일식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 폭
을 넓혀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.

그동안 새꿈도시(독일마을) 조성사
업 택지 분양을 위한 재독 교포, 귀
농·귀촌인, 도시권 은퇴자 등 입주 희
망자와 이번 독일 현지 방문 희망자를
포함 46명이 넘어 1단계 사업을 본격
적으로 추진하게 된다.

고흥군은 관련법에 따른 사전 소구
모 환경영향평가, 소규모 사전재
해영향평가, 산지전용허가, 토지개발
행위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먼저 추진
해 새꿈도시(독일마을) 조성사업 착
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
고 밝혔다.

특히, 독일 현지 방문 설명회 기간
에 '전남 고흥 독일마을 설명회'와 '고
흥군 거금도에 독일마을 조성 민·관
합동 설명회 가져'라는 제목으로 유
럽 교포신문 등 3개 언론사에 홍보돼
참석하지 못한 교포들에게도 사업추
진 내용을 공유하는 관심을 보여 주
기도 했다.

/고흥(전남)=양수영 기자
ysn6313@metroseoul.co.kr

지역 이모저모

구미시

'불필요한 일 버리기' 조직 변화

구미시가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
위한 '불필요한 일 버리기(이하 '불.필.별.')추진으로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
키고 있다.

관행적·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
무를 원점 재검토 하기 위한 것으로, 시는 내
부 행정망 내 익명계시판 운영을 통해 직원
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.

한편 구미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일
잘하는 조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. 적극 행
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
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'구미 위
키'와 직원 소통 플랫폼 '혁신 상상 놀이터'
를 개설했다. /구미(경북)=이상호 기자 leesh0412@

신안군

도초면 화도항서 '섬 간재미축제'

전남 신안군은 도초면 화도항 물양장에서
19일부터 21일까지 '제5회 섬 간재미축제'
를 연다. 이번 행사는 '신안 100섬'의 수산물 흥
보와 판매촉진, 지역민 화합의 장 마련을 목적
으로 도초면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
회가 주최한다. 간재미는 신안지역에서 주낙
을 이용해 잡으며 양식 가능 어종이 아니다.

간재미는 육질이 단단하며 손질할 때 물
로 씻으면 살이 흐물거리면서 맛이 떨어진
다. 막걸리로 세계 문질러 뒤야 육질을 연하
게 만든 후 회무침으로 즐긴다.

/신안(전남)=황세훈 기자 pinksea97@

순천시

'스페이스 브릿지' 랜드마크 부상

순천시(시장 노관규) '스페이스 브릿지'가
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.
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7일만에 관람객
21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
가운데, 기존 꿈의다리를 리뉴얼한 '스페이
스 브릿지'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.

기존에 설치됐던 강익중 작가의 '꿈의다
리'는 컨테이너박스를 재활용한 작품으로,
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누수, 탈각 등의 문
제가 꾸준히 발생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
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형태로 존재하는 14만
여 점의 작품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
착수했다. /순천(전남)=전정신 기자 spirit@

전남도

결혼이주여성 복지 강화

전남도가 다문화가구원 5만 시대를 맞아
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결혼이주여성들에
대한 촘촘한 복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.

전남도는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차별 없
는 성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
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
적극 추진할 방침이다.

도와 22개 시·군 가족센터는 ▲결혼이주
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과 운영 ▲다문화
엄마학교 운영 ▲국적 취득비용 ▲맞춤형 취
업 ▲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.

/전남=양수영 기자

경북도, 中·몽골 수출시장 개척

中·라오닝성과 우호도시 교류 체결 몽골서 친환경에너지 공급 등 협약

경북도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
국 라오닝성과 몽골 울란바토르시를
찾는다.

이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K-푸
드, 그린에너지, 바이오 등 경북의 강
세 품목에 대한 수출활로를 찾겠다는
계획이다.

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5일 중
국 라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 라오닝
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
우호 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한다.

협정서는 통상, 투자, 산업, 과학기
술 등 경제·과학 분야의 협력을 주 내
용으로 삼고 있다.

경북도와 라오닝성은 지난해 10월

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더욱 긴밀한
협력을 위해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협
정을 체결키로 합의해 이번 이철우 도
지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.

이어, 이 지사는 베이징을 거쳐 17
~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경북의
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
펼친다.

먼저 17일 울란바토르시가 중점 추
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그린도
시 조성 및 양수발전소 사업에 경북도
가 협조하고 먼저 참여하는 방안을논
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18일에는 이 지사는 울란바토르 문
화센터에서 대학생, 공무원 등을 대
상으로 경북의 새마을운동과 산업 발
전을 알리고 우수 유학생 유치에 나선
다. /경북=장영우 기자 ycyw57@

경주시, 신재생에너지 보급·확산 집중

에너지 비용 절감·탄소중립 실현 올해 19억 예산으로 지원사업 추진

경주시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
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
생에너지 보급·확산에 집중한다.

올해 19억원 예산을 들여 ▲신재생
에너지 주택·건물지원(14억원) ▲취
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(3억원) ▲복
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및 열회수형 환
기장치 설치(1억원) ▲기업에너지 고
효율 설비개선 지원사업(1억원)을 추
진한다.

신재생에너지 주택·건물 지원 사
업은 단독주택, 복지회관·경로당에
자가 소비 목적으로 태양광, 지열 등
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
를 지원한다.

주택지원 사업(106곳)은 3kW 용량

태양광 설치시 가구당 총 설치비용은
596만원 정도이며, 자부담금은 178
만원(30%) 정도 된다. 월 400kW 사용
가구 기준으로 년 간 60만원 정도 전
기요금이 절약된다.

건물지원 사업(31곳)은 지역 복지
회관, 경로당, 향토뿌리 중소기업 등
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당 3kW 용량
태양광 설치기준 총 설치비는 600만
원 정도이며, 중소기업에 한해 20%
자부담이 있다.

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
득층 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조명
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
지원하는 내용이다. 전력 소비를 최
대 50%까지 낮출 수 있어 에너지 절
약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한 번에
달성할 수 있다.

/경주(경북)=이상호 기자 leesh0412@

해남군, 81명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

정착금·창업자금 등 연계 지원

해남군이 해남미래농업을 이끌어갈
청년 농업인 육성에 발맞추고 나섰다.

해남군은 올해 81명의 청년창업형
후계농을 선정, 청년들의 안정적 영
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
고 있다.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
최대 3년 동안 월 90~110만원의 영농
정착금을 지급하고, 농지·시설을 매
입·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 창업자
금과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
선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.

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
지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
업인 및 예정자가 대상자로, 오는 4월

말까지 2차 모집도 실시하고 있다.

이외함께 해남군은 청년농업인 단
계별 맞춤형 사업지원 모델을 구축해
우수 청년농업인을 육성과 지원에도
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신규
청년농 유입 단계에서부터 기초교육
과 컨설팅, 정착지원, 성장에 이르는
지원모델은 진입 유형과 단계별로 다
양한 사업들이 지원된다.

이에따라 11개 사업에 41억6100만
원을 투입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
개별농가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
고, 청년 4-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
사업 등 청년 초기창업과 영농기반 마
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.

/해남(전남)=이대호 기자 eogh7505@

경남형 스마트 공장, 지방비로 구축 지원

기업 DX 역량따라 유형별 맞춤 지원

경남도는 (재)경남테크노파크와 함
께 올해부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에
대해 지방비로 자체 지원하는 '경남
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'을 추
진한다.

경남도는 정부의 '신(新)디지털 제
조혁신 추진 전략'으로 올해부터 처
음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
대해 지방비로 자체 지원한다.

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에서
벗어나, 기업의 디지털 전환(DX) 역량
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.
경남도는 올해 ▲경남형 스마트공

장 ▲대중소 상생형 2개 유형의 기초
단계 자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.

먼저, '경남형 스마트공장'은 기초단
계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
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도내 85개사에
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.

'대중소 상생형(삼성형)'은 삼성전
자㈜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기초단계
지원사업을 도내 30개사에 기업당 최
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.

대중소 상생형(삼성형) 스마트공장
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은 4월 말 중
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
할 예정이다.

/경남=이도식 기자 metrobusan@